

閨房歌辭를 통해 본 死別認識考

—宿命論에 선 寡婦歌를 中心으로—

權 泰 乙

<目 次>

I. 머리 말

II. 본 말

1. 業報에의 順應

2. 死生을 貫流하는 理性的 힘

III. 맺는 말

I. 머리 말

本考는 「閨房歌辭」(身邊嘆息類)¹⁾ 所載의 寡婦歌 9편²⁾ 중 3편을 통해 남편을 여윈 부인의 死別에 대한 認識을 고찰하고 그것이 독자에게 주는 감동의 효과를 특히 主題意識面에서 살피고자 한다. 이는 곧 閨房歌辭의 源流的인 위치에 놓이는 것이 誠女教訓類요 그 主流을 이루는 것이 身邊嘆息類라 하지만,³⁾ 本歌의 탄식보다 더 절절함이 없고 또한 탄식을 극복하는 모습은 곧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에서 살피질 과제의 하나이기도 한 까닭이다.

本考에서는 「47. 청춘과부가», 「48. 청승가», 「52. 상사몽」을 대상으로 하며 48과 52는 대비 고찰키로 한다.

李朝(18C후) 女性生活의 位와 相을, 男尊女卑란 位는 一이지만, 相에는 自嘆과 周邊으로 인한 탄의 二로 나타나 身邊嘆息類는 位一而相二로 大別되나⁴⁾ 本歌는 位一而相一이라 하겠다. 그러나, 相一은 그 性格上 諸相을 보이고 있어 本考의 標題를 이점에서 취하였다.

1) 權寧徹, 閨房歌辭(身邊嘆息類), 曉星女子大學校 出版部, 1985.

2) 上同의 책에는 88편의 가사를 수록, 번호를 매겼는데, 그 중 45~52, 58 등이며, 87·88은 아내를 잃은 남편의 가사가 있으나 과부가는 아니다.

3) 權寧徹, 앞의 책, p.5 참조.

4) 權寧徹, 앞의 책, 「閨房歌辭에 나타난 身邊嘆息類의 研究」, pp.8~13에서 조선 시대 여성생활의 位와 相을 상론함.

Ⅱ. 본 말

本考가 대상으로 삼은 歌辭는 變容·變格 歌辭⁵⁾가 主라고 하겠으며, 필자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本歌辭集에서 표기한 句⁶⁾마다 번호를 매겨 먼저 그 작품의 내용상 구성을 제시하고 諸相을 고찰하기로 한다.

1. 業報에의 順應

「47. 청춘과부가」의 작자는 미상이나 출처는 尙州郡 銀尺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상 구성은 다음과 같다.

序辭	……(가)	(1)~(3) 唯有夫婦
本辭	……(나)	(4)~(17) 微物도 작이 있다.
	……(다)	(18)~(33) 님의 不在
	7) ……(라)	(34)~(41) 同死에의 念願
	……(마)	(42)~(60) 604일간의 悲哀
	……(바)	(61)~(80) 生而不如死
	……(사)	(81)~(99) 來生再合希願
	……(아)	(100)~(107) 男便不在의 現實의 自覺
	……(자)	(108)~(129) 夢中の 念願
……(차)	(130)~(158) 遊覽	
結辭	……(카)	(159)~(168) 宿命의 自我發見

序辭인 (가段落⁸⁾)은 공방 청상의 절박한 位相을 ‘얼것으나 거것으나 부부밖 에 또 잇는가’란 말에 응축시켰다. 夫婦同樂에서만 출가 여인의 존재 가치는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이 명제는 本辭의 序頭가 되는 (나)단락에서 무참히 깨짐을 볼 수 있다.

남질승과 길버어저 다각작작 잇건마는
전생차생 무선죄로 우리들이 부부되어

- 5) 洪在傑, 歌辭文學論, 「國文學研究」(8집), 曉星女大 國語國文學科, 1984, pp. 14 ~20 참조.
- 6) 洪在傑, 앞의 책, pp. 14~17 참조. 句文을 隻辭단위로 보고 있는데, 이도 역시 本歌辭集의 표기에 따라 4隻句를 한 句로 보고 번호를 매김.
- 7) ……(걸선)표시는 엄밀히 따져 단락을 하나로 볼 수 있으나 논의의 편의 및 서술의 진행상 다소의 작자 심정의 전환이 보여 단락을 따로 설정함.
- 8) 몇 개의 句가 모여 내용상의 한 매듭을 짓는 단위를 단락이라 칭함.

.....中 略.....

말잘하고 인물좋고 활잘쏘고 키도크고
다정하든 정리낭군 사랑하든 우리낭군
무슨나이 그리많어 청산초혼 되단말가

라고, 微物조차 짝이 있는데 百年偕老의 佳約을 맺은 자신은 靑孀이 되었으니, 이 불행은 인간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절대 존재의 의지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기에 <前生此生の 業罪, 하나님의 무심, 가운의 불행, 귀신의 무정>으로 돌려 三生の 緣分인가·이생의 팔자인가고 되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답이 없을 반문은 관념적 위안(종교상의 해석에서)은 될지 모르나 현실적 위안은 될 수 없고 되려 체념 못하게 하는 답답함을 부채질하게 되니,

기위부부 되었거던 죽지말고 살았으면
부질없는 이내심사 어느누가 위로하리

라고 生의 모순 즉 氣數의 顯差⁹⁾ 앞에 절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천상 천하에 위로받을 수 없는, 모순의 소산물인 작자를 향한 동정도 그만큼 절실감을 더했다. 이 점에서 (태)단락은 불가해한 인간 존재성을 더욱 심화시킨 육성의 몸부림이라 할 만하여, 던저는 <病·弱水·長城·水深·山高> 등의 장애야 <배타고·기어넘어>라도 극복이 가능함을, 나중은 <병중의 황새가 날면·금강산이 바다가 되면> 오려는가로 극복 불가능에의 期待를 제시함으로써 生死를 잊고자 했던 관념상의 절규는 死生이 判然한 現實上의 절규로, 男便의 不在는 既定事實이 되고 만다. 이같은 서술은 작자의 심적 갈등이 빚은 자연스런 결과이며 또한 작자의 소박한 문학적 재능과도 결부된다. (태)단락의 <同死에의 念願>에서,

가슴속에 불이나니 생초목이 다타잔다
눈물이 비가되어 불는불은 끄렷마는
한숨이 바람된다.

는, <생초목을 태우는 心火>를 놓고 <절망에의 눈물>과 <바람되는 한숨>을 대비시켜 결국 <心火>는 끌 수 없다는 抑揚法은 言外の 言을 응축시킨 문학

9) 李萬敷, 道東篇(卷4), 性命에서 柳西厓曰余嘗在經席 上問氣數之說 余對曰天數寒暑也 人亭裘葛也 寒暑雖可以人力移易 然裘葛備 則可以御寒暑 而不爲寒暑所因……云云 한테서 보면 氣數는 天의 운행 자체며 만물이 품부한 품수라 이해할 수 있다.

4 嶺南語文學(第13輯)

적 재능의 소산이라 할 만하다. 더구나,

구중청산 깊은골에 잠자느라 못오는가
 자내일생 못오거든 이내물을 다려가소

란, 함께 죽지도 못한 자신의 실체를 적시하고 있는 모습이며¹⁰⁾ 죽음이 끝
 씬의 길임을, (매단락 (42)~(52)는 서술하고 있으나,

근원버릴 칼이업고 근심없을 약이없다
 사랏올때 하든거동 눈에삼삼 그려잇고
 죽어갈때 하든말씀 귀에쟁쟁 막혀있네
中 略.....
 원수로다 원수로다 천하사람 많건마는
 아니죽고 살라해도 임생각이 절로난다.

〈살았을 때의 거동〉과 〈죽어갈 때의 하던 말씀〉 곧 情理와 義理 사이에서의
 갈등은 〈근원(비능적 욕구) 버릴 칼이 없고 근심(살아야 할 靑孀·며느리,
 없앨 약)도 없는 갈등이기에 604일(大喪日) 다 지내도 눈물마를 날도 없는
 것이다.¹¹⁾ 이같은 비애의 갈등은 (53)~(60)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내적 갈
 등만이 아닌 자연의 변화(景物)마저도 비애의 대상이 되므로 하여 발붙일
 곳 없는 현실에서의 탈출구를 (매단락에서는 〈중·보살〉이 되어 佛法의 힘을
 빌든가, 〈如醉如狂〉하여 만사고를 잊으려 하나,

방정마친 내팔자야 팔자중에 불쌍하다
 십칠세에 겨우되어 과부될줄 어이아리
 사십과부 되었으면 한탄할내 아니로다
中 略.....
 다른이별 싫다한들 영이별과 같을쏘나
 생불여사 뿐이로다.

〈生不如死〉란 결론밖에 얻어질 게 없다. 此生에서의 自我와 自我, 自我와
 世界와의 갈등은 (매단락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단락 구분의 이유는

10) 李石來, 李朝의 女人像, 乙酉文化社, 1977, p.101, “공방을 지켜 꽃같은 젊음
 허송해 버린 節孀라는 이름의 여인, 그들은 가문에 빛을 주었울지 몰라도 너무
 도 가없이 시들어 버린 인생이었다.”
 11) 燕岩集 卷一, 傳, 烈女威陽朴氏傳, 景仁文化社, 1974에서나 慶北大師大 國文學
 會, 東野棠集(6) ‘授簡書老婦垂誠’ 등에서도 과부의 갈등은 잘 드러나 있다.

점층의 단계를 감안한 데 있었다.

즉, 義理를 좇아 살려해도 情理로는 生而不死인 자신을 숨길 도리가 없는 것이다.¹²⁾ (사)단락은 바로 歸天再合(來生再合)에의 염원이,

죽은목숨 싫다한들 나와같이 설울쓰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인제죽어 고히되어 만나보기 하옵소서

로 나타나, 죽은 목숨보다 산 목숨이 더 싫다는 애소는 言外에 남편의 夭死를 원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기에 來生再合에의 希願은 觀念上的 것이지 현실 타개책은 될 수 없으며, 이런 願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男便의 不在는 절감되고 만다. (애)단락이 바로 남편의 부재를 인정하는 단락으로,

앞날산 좋은받은 어느누가 가라주며
동창하 비즌술을 놀로하여 맛올보리

란 호소는 바로 자신이 혼자임을 분명히 인식한 애소라 하겠다. (재)단락은 이를 수 없는 지상의 염원을 천상에서나마 이뤄 보겠다는 절절한 염원에서 짐짓 설정된 단락으로,

육면을 잠간드려 장원의 후향집은
나를조차 이터난다
어화 이일이야 청여장 손에들어
반공에 높이떠서 천하를 굽어보니
눈앞에 구주로다

.....中略.....

인계서 보낸편지 본듯만듯 손에들고
가슴우에 언졌드니 편지가 중치않나
가슴이 답답하다 슬프고 가소롭다
춘몽일시 분명하다

꿈속에서도 지상의 소원대로 (하나님, 천궁상제, 월궁섬대, 후로부인, 심왕

12) 許蘭雪軒外(金智男역), 歷代女流漢詩文選, 대양서적, 1982, pp. 3~4에서 여인의 인고를 지적하고 150여명의 여류시인 중 그 일부를 실은 것 중에 “삼종의 도를 따르자니 몸 편할 날이 없어/푸른하늘 원망하리 죽은낭군 탓이로다/서러워 백화정 위에 올라 바라보니/피끄리 울어대고 버들 푸르러 봄은 저문다/(백화당 부인)고 한 슬회와 본 작자의 심회는 일치한다 하겠다.

전》¹³⁾에 두루 낭군과의 재회를 애소하여 임의 편지를 받았는데도 〈본뜻만 뜻〉한, 〈중치않나〉가슴만 답답한 준몽을 끝내 불과하다. 이제는, 地上에서 만이 아니라 天上에서도 임(낭군)과는 만날 수 없음을 확연히 깨달은 것이다. 이는 곧 情理나 義理의 어느 쪽을 따라도 자신의 구제는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아서라 다버리고 유실구경 하고보 자’는 (채)단락은 서사문학의 극적 전환에 해당하며 사상적으로는 〈窮則變 變則通〉(易經繫辭下)¹⁴⁾의, 變化가 通으로 이르는 단락이다. 만사를 떨치고 유람의 길에 오른 작자가,

난대없는 중하나이 백발염주 목에걸고
 육환장을 손에 들고 연연히 나오더니
 합장개배 묻는말이 부인오기 뜻밖이요

뜻밖에 중을 만나게 되고 ‘남승인가 자세보니 여승이 분명하다.’ 여승임이 반가워서 따라간 절, 불당에는 이미 작자가 올 것을 안듯 여러 중이 맞아 주었다. 〈뜻밖〉의 중을 만났으나 〈필연〉이었고 窮에서 通으로 이르는 극적 전환이 마련된 셈이다.¹⁵⁾

(채)단락은 대단원의 막이 내리며 인간계의 모든 흠에서 해방을 얻는 단락이다. 老僧이 일러주는,

전생에 부인께서 이절법승 되었을때
 부처님께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시매
 청용사 부처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이곳을 인도하니 청춘에 죄받을을
 조금도 실버마소
 어화 내일이야 이제사 아리도다

前生事를 들고 불가해의 인간고에서 벗어나는 탄성을 지른 것이다. ‘기위부

13) 이런 용어는 불교 사상이 거저이면서도 “불가의 인과응보 사상을 도입하고, 三十三天의 불가계천의 사상을 본떠 三十二天을 설정하고 諸天諸神에 下鑑下에 인생의 공덕이 주판되는 것”(李能和, 李鍾殷 역주, 朝鮮道敎史, 普成文化社, 1977, p. 309)으로 본 도교 사상도 습합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14) 사물이 궁극에 도달하면 변하고, 변화하면 통하는 길이 열리는 이치는 野談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拙稿, 東野彞韓 所載 野談의 類型的 研究, 영남대학교학원, 1979, pp. 56~67에서 ‘充尼型’에 단 7편의 야담을 발견할 수 있었다.

15) 張德順은 國文學通論에서 이같은 서사성을 띤 歌辭를 叙事的 樣式에 넣은 바 있다(朴喆熙, 文學概論, 형설출판사, 1979, p. 70 참조).

부 되었거던 죽지 말고 살았으면'에 대한 此生苦의 불가해에서 '편지가 중치 않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꼈던 夢中에서의 不可解도 말끔히 가시었다. 靑春에 罰(과부의 罰)받은 음은 靑生에 자신이 佛法僧이었음에 당연한 일이다.¹⁶⁾ 작자의 '어화' 속에는 자신의 꿈에서 해방되는, 어쩌면 속죄의 단축에서 우러나는 감사에의 탄성을 볼 수 있으면서, 독자로서는 불행했던 처지(한 여인)가 극적으로 행복에로 끝남에, 경이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이는 解題에서 밝힌 바와 같이 '叙事的 構成도 훌륭한 名文章'의 문학적 효과라 할 만하다. 본 가사의 갈등 양상(↔표시는 자아와 세계, 자아와 자아의 갈등 표시 →표는 서술의 진행 표시 ⇨전환 표시)을,

(가) 夫婦合↔태 寡婦(微物도 有配↔과부)→태 님의 不在(可能에의 期待↔不可能에의 期待)→태 同死에의 願(눈물→[心火]←한숨)→태 悲哀(情理↔義理)→태 生不如死→태 再승의 願→태 달린 부재 실감→태 夢中(편지받음→못읽음)⇨태 유람(증을 간담)→태 (前生確認↔此生否定)⇨世苦에서 벗어남

으로 볼 수 있어 작품 전형상 단락 사이의 縱橫的 대립 및 橫的 갈등·대립의 심화와 진행의 유기성, 끝부분의 탄젠트식 구성에 의한 전환 등은 한 편의 소설 구조를 연상케 하여 작자의 문학적 소양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으로, 작자가 남편과의 死別 認識을 佛法으로 전환, 현실적 비극을 <業報에의 順應>으로 극복함으로써 표면상으론 작자를 향한 안도의 숨을 내릴 수 있게 하였으나 이면에 깔린 言外의 말 즉 <이렇게 밖에 나(과부)를 다스릴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독자는 직접적 통곡에서보다 더한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다.¹⁷⁾

2. *死生을 貫流하는 理性的 힘

서론에서 밝혔듯이 「48. 청승가」를 살림에 「52. 상사몽」과 같은 상황의 표현이나 사상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전자는 철두철미한 儒家的 思想을 지닌 여인이 來世의 再승을 그 궁극의 목표로 삼은 대신, 「52. 상사몽」은 과

16) 이같은 사상은 譚隆小說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다.

17) 燕岩集 卷12, 熱河日記(太學留館錄), 景仁文化社, 1974, p.209(上)에서 燕岩과 館汀의 대화 속에서도 有故로 미처 결혼도 못한 여인의 수절을 예외에 맞는 게 아니라고 함. 이로부터, 수절 자체만을 고상히 여긴 것은 남성위주의 횡포일 수도 있다.

* 死生界를 一貫해 흐르고 있는 이성적 힘, 즉 삶과 죽음의 인식에 일관되게 작용한 여성의 힘.

8 嶺南語文學(第13輯)

부이나 유복자를 얻은 몸으로 現世의 부부애가 전부라고 결론지은 작품이다.

전자가 235句며 후자가 220句로 분량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교양이나 문학적 소양, 사상성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8. 청승가」의 내용 단락만 도시하고 논의에 임하도록 한다.

- 序辭……(가) (1)~(8) 夫婦之道讚
- ……(나) (9)~(15) 父母之恩
- (라) (16)~(24) 父母之願
- (마) (25)~(35) 婦德을 익힘
- (바) (36)~(49) 定婚
- (사) (50)~(62) 成禮
- (자) (63)~(79) 天定配匹에 만족감
- (차) (80)~(85) 于歸
- (재) (86)~(113) 男便得病·致誠無效
- 本辭: (차) (114)~(130) 男便夭死
- (가) (131)~(147) 소식둔절
- (나) (148)~(157) 따라 죽지 못하는 한
- (다) (158)~(183) 觸物이 다 想夫에의 매체
- (라) (184)~(196) 絶對의 孤獨
- (리) (197)~(204) 婚需절경(회억)
- (로) (205)~(209) 100일만에 보는 자신의 모습
- (לו) (210)~(219) 烈婦苦行
- ……(마) (220)~(228) 死生認識
- 結辭……(마) (229)~(233) 再會願
- 添辭……(마) (234)~(235) 글쓴이의 첨기

序辭에서 夫婦之道의 소중함을 논함에 嫁娶法, 夫婦有別(謂夫主外 婦主內 職分各有別也), 夫爲妻綱(夫尊妻貴, 夫尊於朝 妻貴於室矣; 儀禮), 乾坤卦에서 역출되는 天高地卑는 다 婦位의 位¹⁸⁾를 설정한 것으로 작자는 이 位를 그대로 인정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로 받아들임으로 儒家의 正統 教育에 의한 생활화를 볼 수 있으니,

* 本歌辭는 가끔씩 題名을 쓰지 않고 비교하는 52. 상사등은 제목을 밝힌다. 비교 때는 번호 48은 청승가요 52는 상사몽일.

18) 權寧徵, 앞의 책, pp.8~13에서, 18C 이후의 한국 여성들의 位와 相을 상론함에, 位는 易經의 男尊女卑→大學(分)→中庸(分數)→孟子(夫婦別의 別)→朱子(名分論)로까지 변해왔음을 지적함.

48. 티극이 비관후에 음양이 논야시니
 천성만민 흥실적에 흑남흑녀 되야군나

52. 어화세상 사람들아 과부상사 틀어주소
 아버닐전 백틀타고 어머닐전 살을타서

本 歌辭는 서두부터가 차분하게 전개될 뿐 아니라 한문교육(儒學的)에 상당한 소양을 쌓은 전형적 士大夫家의 法度가 몸에 밴 사람임이 「52. 상사몽」의 서두와 비교하면 판이하게 구별된다.¹⁹⁾ 특히 48은 위에서 언급한 夫婦의 道가 논리 정연하게 전개되었다. 다음은 本辭의 서두가 되는 (배)단락을 보면,

48. 하허은덕 우리부모 신채발부 혈기파다
 십삭기호 채운후에 이너몸이 성기신너
 남자이나 여자이나 부모자정 다름인가
 칠일금석 모욕지기 삼신전에 비난말리
 왕교적송 명을주고 석순왕에 복을주고
 만석군에 정기밭고 이복에난 총명이라
 톱년히로 다자다손 수복강영 점지호소

52. 초로같은 우리인생 부운같이 생겨나서
 부모님의 은덕으로 고히고히 자라날제

먼저 태어남의 경우부터가 48은 ‘身體髮膚受之父母’에의 은혜를 말한데 비해 52는 ‘浮雲같이 생겨난’ 것으로 감정의 충일을 볼 수 있다. 48은 계속 男尊女卑의 차별없이 애지중지해 <命·福·富·智·多子孫>의 염원 속에서 자랐음을 아주 사실적으로 서술해 사려깊은 여인, 理性的 女人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할 수 있다. (배)단락 역시 (배)단락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門閥이며 家勢가 합당한, ‘반석쫓코 정자존터 가리가리 안치시라’던 부모의 염원은 뒷날 딸이 과부가 됨으로 하여 부모에게는 가슴의 못이 되고 작자 자신에게는 비탄을 더하는 소망이 되어, 독자에게는言外에 비애의 困을 감지케 한 단락이다.

(배)단락은 출가전 婦德을 익히는 과정의 서술로 철두철미 ‘行有餘力則學

19) 부녀자에게 교육을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士大夫家의 부녀는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을은 주지의 사실이다. 息山先生讀書日記, p. 41 <註>, 息山은 李萬敷(1664~1732)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婦人亦不可不讀書’라 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小學 정도의 교육이다.

文' 20)의 실천임을 보이고 있다.

48. 여자십년 불출호와 규문밧글 모르고셔²¹⁾
中 略.....
 출동자익 우리어마 위로히셔 하신말삼
 여공에 티인얼튼 모도다 비와두면
 유조하니 기억니언 언문글른 여가바셔
 익혀두라
52. 남이집에 출가하면 제일가는 그으뜸이
 시부모 봉군자요 봉제사 집빈객과
中 略.....
 검검한 호통불을 등잔위에 받쳐놓고
 가이가며 나이나로 하이야를 읽을적에
 초경이경 다지나고 야삼경 달쳐올제

「48. 청승가」나 「52. 상사몽」의 작자가 성장 과정의 차이를 보인다. 48이 법도의 정체를 밟았다면 52는 시대적으로 신학문에 눈을 뜨던 시기의 작이라 할 수 있다.²²⁾ 표현에 있어서도 전자가 훨씬 발음경제된 압축미를 보이고 후자는 리듬을 의식(가이가며~하이야를...)하여 되려 의미상에 무게를 덜었다 하겠다. 또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리나 심정을 깊이 헤아린 점에서도 전자의 경우가 월등 진솔하다 할 수 있겠다.

(마)단락의 定婚 때만 해도,

48. 우리부친 허혼하야 사성오고 일편간너
 여자의 본심으로 슈집하기 여사료다
 붓그려워 말못하나 중심으로 실상조와
 뭇중에도 종종본니 천경비필 정영하다

고 처녀의 수집음과 본능적 희열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가식없는 본심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도 처녀(여인)의 格²³⁾은 조금도 흠으러지지 않고 있는

20) 論語, 學而篇.

21) 權五惇 역해, 禮記, 內則 12, 弘新文化社, 1980, p.243에서 남녀 분별을, 男子入內 不嚙不指 夜行以燭 無燭則止 女子出門 必擁蔽其面 夜行以燭 無燭則止라고 함.

22) 두 작품은 開化期 이후의 작이라 볼 수 있으나 52가 좀 더 근세의 작이 아닐까 싶다.

23) 張德順, 韓國隨筆文學史, 새문사, 1985, p.204에서 祭文의 格調를 “격조를 갖

데 비해,

52. 사주단자 다쓴후에 택일을 집혀보네
이월칭명 지나두고 만화방창 삼월이라
만물이 다시살고 온갖화초 피날때라
마음속이 반가워서 소리없이 웃어봤네

란 표현은 술직성에서 48과 차이가 없으나 前者의 표현이 정밀하면서도 主들의 核을 집중시켰다면 후자는 狀況만으로 그 실상을 상상케 하여 ‘마음속이 반가워서 소리없이 웃어봤네’란 대담한 표현은 ‘몽중에도 종종보니 천정 비필 정영하다’란 표현과는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르나, 天定은 바로 夢中에도 인식된다는, 정혼한 처녀의 부푼 기대감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점은 처녀란 格과 기쁨이란 본능적 심리가 조화를 얻었다 할 만하다.

(바)단락의 成禮하는 장면의 묘사도,

48. 천성경누 청의동자 빙학타고 나리난듯
만병간첩 모인손님 만고일담 청도호며
이웃집 늘근신너 등올치며 흥난말리
복도만타 이척시아 너인물이 이려커든
요소숙여 여귀두고 군자호구 어덕가리
52. 열두쪽 차일치고 화계병풍 둘러치고
오신손님 마을사람 구름같이 도였구나
숙닭은 좌편이요 암닭은 우편이라
.....中 略.....
부선재배 절을하니 서담일배 받아주비
환배이진 한연후에 거찬절찬 예필이라

고 하여 48과 52의 작품적 효과에 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52가 성례시의 극히 상징적인 절차를 확인한데 비해, 48은 축복받은 成禮의 장면을 精緻하게 그렸다 할 수 있다. 특히 ‘이웃집 늘근신너’를 등장시켜 작자 자신의 요조숙녀다운이 군자의 작됨을 은연중 표현한 숨씨나, <늬은이>의 칼로써 미래를 신뢰받게 한 점은 자신에 대한 긍지를 차분하면서도 도도하게 드러내는데 성공했다 하겠다. 이같은 여인을 바라보는 독자는 이 여인이 悲運에

을 제문이란 슬픔이나 死者의 덕의 칭송에 있어 절제와 승화를 획득한 것을 말한다.”고 했거니와 기쁜 감정의 횡일을 걸잡지 못하면 실상 기쁨의 진솔성이 가뻐워진다.

부딪칠 때마다 행복의 極에 이른 이 모든 사실은 작자만큼이나 안타까운 동정의 因이 되고 인생은 不可解란 因이 됨을 동감하게 된다. 더구나 (사)단락은 天定配匹을 단난 初夜의 정경을 묘사했는데,

48. 부용갓탄 두귀밧히 연지분 가라씩고
 평성으로 안볼듯시 등올지고 마조안자
 안여자의 염치로써 현쳐이사 불슈잇나
 등잔불 그릴자에 넘눈으로 살롬보니
 빅옥으로 짝가실니 진니기도 전혀없다

52. 화월삼경 깊은밤에 양인이 누웠시니
 남남끼리 만났것만 어이그리 유정튼가
 부모정이 깊다한들 여기서 더할소나
 동기정이 깊다한들 여기서 더할소나

52의 술적 대담한 표현도 다른 가사에서는 보기 드문 표현이지만, 화축동방의 전경 묘사로서는 48이 훨씬 사실적이면서도 적실하며 당시의 정황을 회화적으로 그렸다 할 수 있으니 ‘평성으로 안볼듯이 등올지고 마조안자’ 있지만 볼 것은 다 보는 첫 장면, 그 수줍음, 그 속에서 52의 〈부모의 정보다 깊고〉〈동기의 정보다 깊은〉 정은 言外에 두고 있음은 朝鮮朝 士家宅 閨秀의 전형틀을 크게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과장없는 品格의 유지란, 작자의 바로 그 체취라 할 수도 있겠다.

(아)단락은 이 가사의 정점이 되는 于歸禮로 ‘우리집도 시족²⁴⁾으로 기구 쫓타 엇실소야’고 기구를 들어 간접적으로 친가의 지체를 자부한 점은 전편을 일관하는 친정 부모에의 恩義를 잊지않는, 그런 사상이 완전히 성격을 형성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²⁵⁾ 이같은 표현에서 작자의 士族에 대한 긍지를 독자는 읽을 수 있다 하겠다.

특히 「52. 상사몽」이 ‘시부모의 명을 받아 하로이틀 한달두달／친척간에 정이들고 산천도 익어지네’라 한테 대해, ‘혈구레 필흔후예 입주삼일 지닛 구나／시모님의 자리지덕 출등홍신 성덕이라’고 「48. 청송가」는 시부모의 〈命〉이 아닌 〈慈愛〉 속에서 지냈음을 피력하여 어른을 그리(畫)는 마음씀씀

24) 士族의 오기가 아닌지.

25) 李民樹譯, 父母恩重經, 乙酉文化社, 1977, p.74 第九爲造惡業恩에 ‘子苦願代受 兒勞母不安’을 체득한 여인의 사려성이라 할 수 있다.

이 두루 치밀함을 볼 수 있다.

(아) 단락까지는 한 여인의 생애 최고 절정(환희)을 이루어 절충되어 왔거니와 이같은 밝음(기쁨)은 뒷날의 어둠(비운)과 극적 대비를 이루게 되니 작품 구조상의 성공은 물론 독자에게 주는 감동의 효과도 그만큼 컸다.²⁶⁾

(자) 단락은 청천의 벽력같은 남편의 得病이다. 「48. 청승가」는, ‘일흠업난 무슨증세 위중함도 위중하다 / 천만금도 너다실코 사람하나 살여보자’고 온 집안이 나서고 부녀자의 마음으로 <문슈>하고 ‘남의 이목 볼것이나 큰곳시나 차려보자’는 마음으로 온갖 약방문·기원을 다 했지만 끝내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이 정연하면서도 심리적으로 이성을 잃었다는 슬직함을 드러낸 데 비해 「52. 상사몽」은 ‘우황썬 암소알툫 아주 쪼쪼 알는’ 남편을 부모들은 차일피일하는데 참다못한 작자는 칠성께 빌고 곳도 하였으나 그도 역시 허사로 돌아간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格을 논할 일이 아니라 양가의 생활상(48은 온 집안의 배려속, 52는 부모보다 아내의 적극성)의 상이함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차) 단락은 男便과 死別을 읊은 단락으로,

48. 인간사난 하직하고 집불갓치 갓난구나
 벽연향수 못홀망정 이십전에 이웬일고
 썰러졌너 썰러졌너 빅양덕 건장궁에
 시간팔척 지은집이 더들보가 불려졌너

52. 십칠세에 머리언고 십구세에 과부되네
 팔자야 내팔자야 더런년의 팔자로다

前者가 後者보다는 심정의 극진성, 표현의 적실성에서 월등 우세하다.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에서 후자는 이성을 잃은 듯한 막달이 튀어 나오니 그 감정은 절실하나 전자의 ‘집불갓치 갓난구나’ 한 표현이나 남편의 존재가 더들보였던 만큼 ‘더런년의 팔자’에서 <나>부터 생각하는 당황보다는 남편의 夭死에 촛점이 맞춰져 있으면서도 교양인의 哀而不傷하는 오열을 詩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²⁷⁾

26) W.H. 하드슨(金容浩 譯), 文學原論, 大文社, 1956, p.55. “문학은 그 지적이요, 정신적 내용, 人生味를 제하고 또한 그 形式美 때문에 우리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다”고 할 만하다.

27) 趙濶濟는 「朝鮮詩歌의 研究」에서 <歌辭는 形式上 詩歌이나 內容上 文筆>이라고 본 바도 있음(朴喆熙, 文學概論, 형실출판사, 1979, p.69 再引).

(카) 단락은 死後 소식 한 자 없는 絶緣을 읊은 대목으로 48은 죽은이를 유람(또는 국사를 말아) 떠나 소식없는 무정에 의탁해 님의 不在를 그리고 있는데 비해 52는 ‘하월삼경 깊은밤에 두리누워 자든일을/소음소음 생각하니 구비구비 눈물이라’ 하여, 육감적인 노골성이 대담하게 그려져 전자는 간접표현에, 후자는 직접 표현에 자기 심회를 의탁했다 하겠다.

(타) 단락은 함께 죽지 못하는 恨을 읊은 단락으로 48이 ‘실낱갓탄 너목숨이 뒷줄갓치 길고기나/그도또한 천명인가 인역으로 못홀너라’ 하여 <목말일>·<익사할 일> 등이 끝내 그도 여의치 못했음을 읊었는데²⁸⁾ 52에 오면 姑婦間의 對話로써 <시부모 고독·머느리의 효성·전담처리·遺腹者> 문제 등을 들어 시어머니가 머느리를 달래는, 視點 전환을 한 점은 표현의 妙를 얻었다 할 만하다. 이 단락에 오면 48의 여인은 구제될 여지가 없는 절대 고독의 주인공으로,²⁹⁾ 52의 여인은 三從의 마지막을 포기할 수 없는 청상의 어머니가 되는 점³⁰⁾에서 크게 차이를 보인다. 이 점에서 「52. 상사몽」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사이에는 生男함으로 어머니로서의 기쁨과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감에 도리어 남편에 대한 애모가 깊어 가는 것을 읊어갔지만, 「48. 청상가」는 觸物이 다 고독을 일깨우는 매체가 됨을 읊고 있으니 이 단락이 (파) 단락이다.

님자손을 수문나무 빙옥당전 미화가지
 날을보고 받기난가 예전모양 방불하고
 별당밭 후원속에 장송늑죽 자진곳에
 실실동동 드리분니 옛음성 흡사하다

님이 심은 <매화>를 차마 못보는 심정이며 대숲을 스치는 바람에서 <옛음

28) 李能和(金尙憶 譯), 朝鮮女俗考, 大洋書籍, 1982, p.178 ‘兩班寡婦’에서 “과부는 깊은 안방에 처하여 밖과의 인연을 끊었으며 族黨이 감시하고 婢僕이 돌리 이를 지켰으므로 비록 사람을 따르고자 한들 스스로 나설 수가 없어 슬픔은 성을 허물고 원한은 하늘에 사무쳤다” 하였으니 행동의 규제가 자결조차도 막았음을 알 수 있다.

29) 黃玟(李章熙 譯), 梅泉野錄, 大洋書籍, 1982, p.106에 <약혼한 10세 소년이 죽자, 약혼녀 집에서 奔喪을 거절하여 墓誌에 安東金氏 아무개의 딸이라고 적었다 함>

30) 李炫熙, 한국근래여성개화사, 二友출판사, 1978, p.10에 “소위 女必從一(夫), 三從之依(義), 七去之惡, 부창부수, 남녀칠세부동석, 남녀유별, 내외관념 등의 法網을 두어 전통적인 외래문화의 압력에 따라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법적 지위는 거의가 악화되어 은폐당하고 말았다.”

성)을 듣는 여인의 심저를 흐르는 아픔은 독자에게 生而不如死(여인의)를 절로 절감케 한 표현의 妙라 할 만하며,

빅옥이 보빅라도 뿔쳐지면 다시갈고
 셔산에 지난달도 후보름에 다시발니
 왕손방초 푸른곳에 귀불귀히 웬일인고

이 絶對 絶緣의 死別이 이미 작자의 것만이 아닌 무상한 인간사 공통의 것으로 절감됨은 그만큼 본 기사가 남에게 호소하는 힘진력이 있음을 말해주는 일이 된다. 內心の 진솔한 독백이 外向的 직접 호소보다 독자에게 주는 감동이 큼을 이 경우에서도 본다.

(하) 단락도 年中佳景에서 絶對孤獨을 느끼는 일로 앞 단락과 성격을 같이 하나, 전자가 자의적인 내심의 반영임에 비해 후자는 타의적인 촉물의 반영임에 단락을 따로 설정했다.

니목구비 남과갓고 사지옥신 성킨마는
 무삼일리 미족호야 남가난디 못가난고
 알수업난 사주팔즈 남만못호 타시로다

는, 숙명론이 나와 팔자에 자기 운명³¹⁾을 돌리고 있다. 이는 곧 漢代 이후의 유가적 운명관에 기인된 것으로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동적·피조물적 존재 의식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ㄱ) 단락은 ‘집불갓치 사라진’ 남편에 의해 또한 자신의 존재도 집불같이 사라짐을 婚需를 절점하며,

어난다시 입어불고 업난다시 여어두니
 업서잔니 의심나고 두고보니 가소롭다

는 자탄은 걱정을 눌러 다스리는 인고의 여인상을 보게 한다. <없애자니 의심나고 두고보니 가소롭다>는 말 속에서도 사려깊은 여인의 내적 갈등을 여실히 읽을 수 있다.

31) 李愛熙, 宋代的 天命觀에 關하여, 『人文學研究』(19집), 강원대, 1984, pp. 54~60에 보면, 天命에 관한 관념은 先秦時代부터 활발히 전개되어 命의 세 가지 의미를 논하고 있는데 첫째 정치적 의미의 천명, 둘째가 인간의 수명·길흉·화복 등이 天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운명·숙명으로서의 천명, 셋째, 性命으로서의 천명을 들고 있다. 이 두 번째의 天命이 漢代의 유학자들에 의해 음향오행설과 참위설을 근거로 하여 天命을 인간의 운명과 결부시켜 해석하고 있다.

(ㄱ) 단락은 大喪을 치르고 난 뒤의 자기 모습을 읊어,

두달반 석달만에 맛참면경 들고보니
 팔자아미 곱든눈섭 헛된삼은 잠관이요
 도화갓치 곱든얼굴 숫장스난 신참홀서

라고 하여 ‘숫장스난 신참’ 할 만큼 변모해 버린 모습은 독자에게도 무한한 동정의 적(的)이 된다 하겠다.

(ㄴ) 단락은 烈婦의 苦行이 바로 갈등의 연속임을,

청용도 턱야점도 인정비난 칼른업고
 창빅홀 석창포도 근심석난 약은업너
 잇자해도 비정이요 생각하면 병이로다
 유유청천 초후인스 나을두고 일너꾸나

에서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잇자해도 비정이요 생각하면 병이로다.’ 인정(情理)과 근심(義理), 남편에 대한 애모와 현실적 삶 사이의 갈등은 끝날 날이 없다. 改嫁나 다른 삶을 모색할 수 없는 비운의 여인을, 독자는 갈수록 깊은 동정에서 바라보게 된다. 宿命을 인정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과부의 한은 망각되거나, 제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ㄷ) 단락은 산 사람의 일에 전환이 오는 단락으로, 死生이 有別함을

통곡하고 실퍼흔들 죽은사람 실덕잇나
 인자사 생각흔니 유명이 다르우나

라고 〈생각〉 즉 이성적 판단에 의해 인식하게 되며 「52. 상사몽」도

얼굴모를 저자식이 아비무덤 찾아가서
 거마금별 하게되면 낭군님요 아시리까

라고 사생이 유별함을 인식하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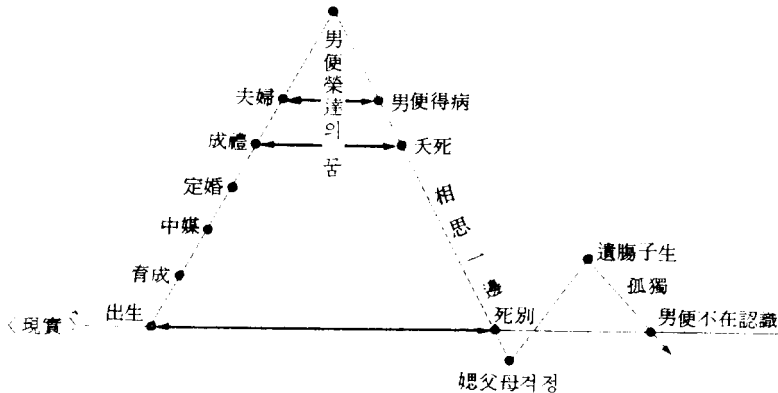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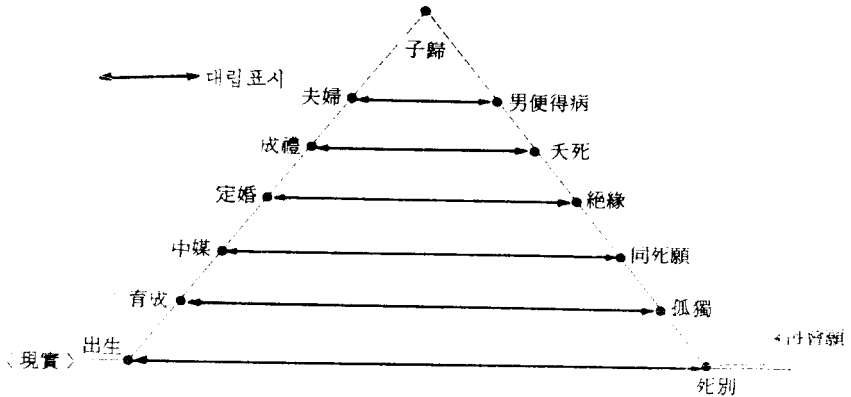
(ㄹ) 단락은 대단원으로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48. 청송가」는 來世의 再會를 기원함으로, 「52. 상사몽」은 現世의 사랑이 전부임으로 나타나 주제 의식은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48. 나도죽어 다시가서 구천타일 다시만나
 이성에 못산흔을 이별말고 사라불가
52. 어화세상 동유님베 부부인정 말도마소

생전시에 그애정도 죽어지니 허사로다
 같이산들 몇십년가 사랑속에 살아가세

前者가 〈玉皇前에 사죄〉하고 再合을 희망함은 비록 道家的 용어를 사용했으나 儒家的 運命觀에 자신의 비애를 최소한 위안받으려 했고, 後者는 현세적 삶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여 실상 내세관을 부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두 가사 구성을 도식해 보면,

「48. 청승가」



위의 표와 같이 나타나 「48. 청승가」는 于歸를 頂點으로 幸・不幸이 對對의 曲線을 긋고 있어 아주 단아하면서도 理性的 힘에 의해 死와 生이 인식되고 있을은 볼 수 있으며 「52. 상사몽」은 걱정의 노출이 구성 자체로도 확연히 드러났다고 하겠다.

添辭인 (B) 단락은

48. 이늘견편 자자귀를 눈물석겨 지어너덕
오자낙셔 만사온니 그덕도록 누리보소

란 당부가 있으나 실상 가사의 본의와는 무관한 천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첨기 역시 작자의 사려성을 엿보게 하는 것으로, 解題에서 “文章이 流麗하고, 깊은 슬픔 속에서도 哀而不傷하는 태도가 엿보이는 훌륭한 작품이다” 했듯이 본 가사는 작자의 해박한 한문 지식과 교양, 儒家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윤리적 생활화, 묘사의 적실성, 구성의 치밀성 등에서도 특기할 만한 작품이다.

결론적으로, 「48. 청승가」는 삶과 죽음을 보는 일관된 理性, 그것은 儒家 精神의 강제에서가 아니라 그 정신의 생활화 내지 사상화에서 얻어진 힘으로 가장 절실한 인간적 욕망(부부에)마저도 다스렸으므로 哀而不傷하는 전형적 여인상(寡婦)이 창조되었다고 하겠다. 理性的 存在 뒤의 恨과 痛哭은 독자의 가슴에 여운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52. 상사몽」은 솔직 대담한 표현으로 과부의 심정을 노골화시켰으며 부모도, 자식도 과부의 한을 위로할 수 없으니 살았을 때 부부는 오로지 사랑이 제일이라고 주장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여인 역시 현실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Ⅲ. 맺는 말

이상에서 세 편(47. 청춘과부가 · 48. 청승가 · 52. 상사몽)의 과부가를 중심으로 李朝女人(嘆息類)의 生活相에 나타나는 二大相(自嘆的 · 주변 곧 운명으로 인한 嘆)을 살펴 왔다. 그러나, 本考에서 다룬 세 편은 어떤 힘에든 간에 현실(과부라는 자신의 실체)을 부정할 수 없는 여인들이었다. 이 세 편 밖에도 과부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46. 과부가」의 작자는 48의 주인공 못잖게 理性的인 힘을 지녔는데도 비극적인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이나 來世에 대한 관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즉 다음 세상을 맞는다면 백년해

로 할 <님>을 접지해 달라 했고 또 스스로도 女性이 아닌 장부로 태어나길 은연중 희망함으로 女性의 位까지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같은 가사는 순종만이 미덕이 아니라 여성의 자각이 일 때의 작품이 아닌가도 보이지만 실상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고 守節이란 美名 아래 평생을 통곡하다가 특히 이조의 여인들 가슴 근처에는 女位를 거부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이제 세 편에서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첫째, 「47. 청춘과부」의 작자는 改嫁가 不許된 李朝社會란 極限狀況하에서 自身の 탈출구를 業報에의 順應으로 찾고 있으나, 그렇게밖에 과부인 자신을 달랠 수밖에 없는 여인의 몸부림·육성은 言外에 言으로 독자에겐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더구나 작품 구성상 원리로 원용된 霸則適의 사상은 이조시대 소설의 구조에도 깊이 관련된 사상이기도 하였다.

둘째, 「48. 청승가」의 작자는 엄하리만큼 고상한 人品을 지닌 여인으로 백년해로 했더라면 賢母良妻로 길이 남을 자질을 타고났으면서도 여성이기에 희생된 못다된 꽃이었다. 하늘에 사무치는 과부의恨을 理性으로 억제하며 血緣에의 名分을 감내하였지만 마지막 소원은 來世서나마 낭군을 만나 백년해로케 해 달라는 엄원의 한계를 벗어날 순 없었다. 그러나, 비애의 현실을 理性으로 극기해 가는 장면 장면에서 새삼 인간 존재의 가치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차가운 理知만에서가 아니라 늘 뜨거운 感性 가운데서 솟는 청량한 샘들같은 理性이야말로 인간만이 지닌 가장 고상한 힘의 원천임을 동시에 일깨웠다는 데 본 가사의 문학적 향취가 있다고도 하겠다.

셋째, 「52. 상사몽」의 작자는 감정의 충일을 억제치 못한 노골성을 보였으나 부부애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일관된 사상은 이 가사를 읽는이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매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세 편을 중심으로 身邊嘆息類—寡婦歌—의 死別 認識은 女姓이란 位를 거부하지 못한 여인들의 諸相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寡婦歌는 크게 宿命論的 立場에서의 자기 위로 내지 탈출을 모색하는 가사와 反宿命論的 立場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가사로 大別할 수 있을 것 같다. 本考에서 살핀 것은 前者의 경우이며 後者의 경우와 대비 고찰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결론으로, 宿命論的 立場에 선 寡婦歌에 나타난 死別 認識은, 死別 그 자체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그 숙명적 사실의 극복을 前生의 業報로 자위하

거나, 儒教的 理性으로 自我의 갈등을 克己하거나, 同樂同死에의 熱望을 끝없이 호소하면서도 此生의 인연들을 차마 끊지 못하는 속에 자신들의 회생을 극대화시켜 보여 줌으로 하여 李朝社會가 지녔던 병폐, 나아가 인간 존재의 한계성을 보여 주었다고 하겠다.